

청소년의 입시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이미리

정현숙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상명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를 일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의 고3생 200명이며,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문항변별도와, 준거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 점수의 분포 양상 분석을 이용하여 문항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입시스트레스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네개의 하위요인(부모님의 압력, 시험긴장과 성적부진, 여가생활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는 총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개별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의 입시스트레스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의 부족이나 대처 전략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송명자, 1995; Petersen & Hamburg, 1986). 이러한 발달적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에 첨가하여 대학 입시라는 문화적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심각하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김미애, 1989; 김종주, 1990; 박종혁, 1988; 이미리, 1996; Diener, Suh, Smith & Shao, 1994; Lee, 1994; Sung, Lubin & Yi, 1992).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스트레스 중에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조길자, 1982; 윤정혜, 1993; 정현숙, 정문자, 1995; Lee, 1991).

선행 연구들은 고등학생의 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1/3이 우울증, 두통, 만성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Lee(1991, 1994)는 우리나라 고3생과 같은 학년의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이 미국 청소년 수준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한국가족학회에서 1300명의 수험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청소년의 52%가 가출충동을, 43%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1996. 1. 29). 실제로 국회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기에 매해 100여명의 고등학생이 학교 성적과 관련된 이유로 자살하였다(김미애, 1988; 박종혁, 1988).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인 증상을 우리는 '입시병' (김종주, 1990)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입시스트레스와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생들이 나타내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은 입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입시생의 부적응 상태를 보고한다. 또한 입시스트레스의 다면적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 수준의 개인차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다시말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입시스트레스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보고되며(김호권, 1991; 배종근, 이미나, 1988; 이성진, 1991; 이시형, 1994; 정범도, 김호권, 이성진, 권균, 이종승, 1993), 똑같이 입시를 치루면서도 입시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다. 따라서 입시스트레스의 전체적 내용은 어떠한지, 어떤 청소년이 입시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지, 입시스트레스와 적응과의 직접적 관련 정도는 어떠한지, 덧붙인다면 다면적 특성을 가지는 입시스트레스의 어떠한 면이 어떠한 적응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의 치료 및 상담을 위해서는 입시스트레스에 대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파악과 입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 그리고 입시스트레스와 적응과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활발한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입시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를 측정하

기위한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양호도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3)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와 점수의 분포는 어떠한가?

선행연구

스트레스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면서 (Selye, 1956),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행동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유형 분류나 측정방법이 연구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Compas, 1987; Compas, Orosan & Grant, 1993; Rutter, 1981). 스트레스는 외적 자극(스트레스원 (stressor)이라고 불림), 외적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Selye(1956)는 이를 일반적 적응 증세(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적자극에 대한 정신적 반응(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불림)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Rutter, 1981),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지적으로 평가되는 내적, 외적 요구(demands)로 정의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Lazarus와 Folkman의 이러한 정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개인이 요구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자원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모델을(예를 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돕는 대처 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서 연구자들

은 주로 부정적인 생활 사건(negative life events)의 빈도나 평정치를 사용하고 있다(이미리, 1985; 정현숙·정문자, 1995; Coddington, 1972; McCubbin, Olson, Patterson & Wilson, 1982; Newcomb, Huba & Bentler, 1981; Swearingen & Cohen, 1985). 부정적인 생활 사건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다양한 대처 행동이나 적응 행동을 필요로 하는 부정적인 생활 경험이나 사건”을 말한다(Johnson, 1982, p.219).

그러나 이러한 측정치와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과의 상관 정도가 예상 밖으로 낮게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Compas(1987)는 주요 생활 사건과 부적응과의 상관을 본 29개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두 변인의 상관관계가 $r=.20\sim.30$ 정도임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스트레스 측정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주요 생활 사건 -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가족 구성원의 사망, 정학 처분 등 - 보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상적인 사건(daily hassles) - 예를 들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것, 숙제가 많은 것 - 으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Rowlison & Felner, 1988).

Lazarus와 DeLongis(1983)는 일상적 사건(daily hassles)을 “일상 생활을 통해 매일 매일 경험하는 사소한 그러나 부담스런 사건들로서 성가시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거나, 때로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요구나 인간관계”(p. 247)로 정의 하였다. 일상적 사건을 스트레스의 측정치로 사용하였을 때 스트레스와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부정적 생활 사건을 측정할 경우 보다 높았으며 이는 일상적 사건이 부적응을 설명하거나 예언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측정치임을 말해 준다(Compas, 1987; 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이러한 결과에 대해 DeLongis와 동료들은 부정적 생활 사건은 일상적 사건에 영향을 줌으로써, 다시 말해 일상적 사건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인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상적 사건의 측정치가 부적응 점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입시스트레스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 사건보다는 자주 경험되는 일상적 사건을 통해 더욱 상세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입시스트레스는 대학 입시를 치루기 전까지 매일 반복되는 내적, 외적 요구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양한 일상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학업에 관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가 생활과도 연관되며(이미리, 1995, 1996), 청소년 한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과중한 기대나 친구와의 경쟁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기도 한다(배종근, 이미나, 1988; 이시형, 1994).

따라서 입시스트레스의 내용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입시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입시스트레스는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안고 많은 시간을 부정적인 정서를 수반한 공부에만 보내야 한다는 내적, 외적 요구(김호권, 1991; Lee, 1994; Won, 1989), 시험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내적, 외적 요구(이성진, 1991),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우들과의 긴장된 관계,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서 오는 가족성원들과의 갈등 등을 포함한다(배종근, 이미나, 1988; 이시형, 1994; Lee, 1991). 또한, 자유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입시스트레스의 주요 부분으로 청소년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정범모, 김호권, 이성진, 권균, 이종승, 1993). 따라서, 입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문항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일상적 사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경신(1995)은 입시생과 부모의 입시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9개의 문항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

모 자녀간 기대차', '학습시간 과중', '점수에 의한 인간 평가', '성적 공개', '부모 체면 손상', '친구끼리의 경쟁',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학업 이외의 활동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였으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70으로 보고되었다. 입시스트레스의 복합적인 요인이 잘 반영된 측정이나, 문항수가 적으며, 타당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제한점이 될 수 있겠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고3 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수준과 관계가 높은 입시스트레스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의 정의를 적용한다. 둘째, 일상적 사건으로 문항을 구성한다. 셋째, 입시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며, 그 하위 영역을 기술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에 위치한 1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의 문과 1개반, 이과 1개반에 소속된 남학생 98명, 1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문과 1개반, 이과 1개반에 소속된 여학생 102명으로 총 200명이다. 두 학교는 연구자에 의해 편의 표집되었으며 각 학교에서 문과 이과 한 반씩 무선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92%가 부모가 모두 계시는 가족의 자녀들이었고, 나머지는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한 편부모 가족의 자녀들이었다.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3.5명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9세(범위=37세~68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5세(범위=34세~59세)이다.

72%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이 중류층에 속한다고 지각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34%가 아버지 학력이 대졸이상, 58%는 중학교 혹은 고등

학교졸, 7%는 초등학교졸, 나머지는 무학이라고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13%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 76%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졸, 10%는 초등학교졸, 나머지는 무학이라고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14%가 전문직, 고급 행정직 및 관리직, 42%가 사무직, 24%는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9%는 일일임금노동직, 그리고 4%는 무직이었다. 어머니의 66%는 전업주부이며 직업을 가진 34%의 어머니 대부분이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그리고 일일 임금 노동직에 종사하였으며 전체의 6%만이 어머니의 직업을 전문직 혹은 사무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 수준 분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의 99%가 부모들이 자신을 적어도 대학 이상 교육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생 자신도 2%만이 전문대 졸업을 원했고 68%는 4년제 대학, 나머지는(2명의 무응답자를 제외) 석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원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1993) 중 '가구주 교육정도 및 자녀성별, 자녀기 대교육수준'에서 나타난 자녀들에 대한 기대 학력, 즉 아들 99%, 딸 98%를 대학 이상으로 진학시키겠다는 통계와 같은 수치이다. 연구대상자의 99%가 다가올 대학입시를 치를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64%는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2. 연구도구

1) 입시스트레스 척도

선행연구 결과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문항들을 첨가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만들었다. 지시문은 "이번 학기동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나의 생활이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란에 V 표 하세요"이며, 응답방식은 리커트식 5점 평정 척도이다(1: '절대 아니

다', 3: 보통이다, 5: '정말 그렇다').

2) 우울증 측정 도구

우울증 측정 도구는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Kovacs(1985)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는 우울증의 복합적인 증세들(우울한 정서, 신체적인 증상, 부정적인 대인관계, 주의집중저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을 총 27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정도의 심각성을 세 가지 문장으로 구분해 놓았다. 세 문장중 '지난 2주간' 경험한 자신의 증세에 적합한 수준의 문장을 한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가끔 슬프다,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의 세 문장중에서 한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이미리, 1995) 요인 분석한 결과 Kovacs가 제안한대로 5개의 요인이 (우울한 정서,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신체적 부적응 증상, 부정적인 자기평가, 부정적인 대인관계)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44.0%이었다. 이미리(1995)의 연구에서 제시한 이 도구의 내적합치도 지수는 .73이었다.

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입시스트레스의 공인 타당도 평가를 위한 또다른 도구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총10문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1)'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의 리커트 척도로 높은 점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89이다.

3. 연구절차

입시스트레스의 척도 구성을 위해 부산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한 학급, 여자고등학교 한 학급에 소속된 고3생 100명(남학생 52명, 여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시

공부를 하면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 나는 대로 모두 열거하고 가능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지시문과 함께 이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입시스트레스의 내용을 개방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3년 5월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기초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같은 해 7월 215명의 고3생(남자 115명, 여자 100명)에게 실시하였다. 총 20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부(남자 98명, 여자 102명)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4. 자료분석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PC와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입시스트레스 질문지는 정답과 오답이 없는 척도이므로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곤란도 분석은 하지않고 문항변별도 분석만을 하였다. 변별도 분석을 위해서 총점을 기초로 상위 1/3 집단과 하위 1/3 집단을 분류하여 각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반응이 총점과 같은 방향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χ^2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총점(상하집단으로 분류된 명목변인)과 각 문항점수와와의 상관은 Cramer의 V계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살펴보았다. 구인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타당도 평가를 위해서는 우울증 점수와 자아존중감 점수를 준거점수로 사용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및 해석

1. 문항변별도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변별도 분석을 위해 산출된 χ^2 값과 Cramer V계수는 표 1과 같다.

총 26개 문항 중에서 24번 문항(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락하신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χ^2 값은 1%와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Cramer V계수가 .35~.70의 범위를 보이므로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4번 문항은 χ^2 값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총점을 기준으로 분류된 상하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타당도, 신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문항변별도 분석

문항	χ^2	V [#]	문항	χ^2	V
1	32.82**	.52**	2	17.72**	.38*
3	23.79**	.44**	4	15.61**	.36*
5	24.14**	.45**	6	21.07**	.42**
7	25.05**	.45**	8	15.34*	.36*
9	46.69**	.62**	10	32.32**	.52**
11	39.91**	.57**	12	26.89**	.47**
13	15.86**	.36**	14	34.27**	.53**
15	14.99*	.35**	16	35.18**	.54**
17	16.53*	.37*	18	25.79**	.46**
19	39.38**	.57**	20	60.32**	.70**
21	39.07*	.57**	22	58.31**	.69**
23	56.56**	.68**	24	5.43	.21
25	25.98**	.46**	26	25.50**	.46**

Cramer의 V, * p<.01 **p<.001

2. 타당도

1) 구인타당도

문항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25개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의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요인들간의 상관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Oblimin rotation)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Scree검사를 하였다. Scree 검사를 위한 plot은 그림 1과 같다.

요인분석과 Scree 검사결과 모두 4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요인이 전체 변량의 95%를 설명한

다. 그러나 문항변별도에서 유의했던 5번문항(선생님께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야단치신다)은 요인부하량과 communality가 낮아 제외하고 총 24문항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요인분석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요인별 문항은 표 3과 같다. 요인1은 '부모님의 압력' 요인으로 모두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한다. 요인2는 '시험불안과 성적부진' 요인으로 24%의 변량을, 요인3은 '여가생활 부족' 요인으로 13%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며, 요인4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11%의 변량을 설명한다. 요인간 상관계수는 .12~.30으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을 나타내고 있다. communality도 .18~.69로 변인들의 요인에 의한 설명력도 높게 나타나 24문항 모두 입시스트레스 척도로 바람직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도구는 입시스트레스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하위척도의 개별적인 이용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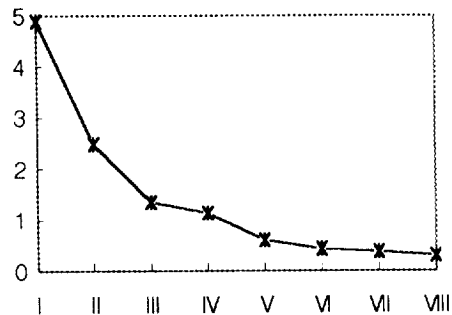


그림 1. 요인별 아이겐값의 Scree plot

2) 공인타당도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의미있는 상관관을 보인다는 것을 일관성있게 제시하고 있다(Cohen, Burt & Bijorck, 1987; Compas, 1987; Hopes, Levinsohn, Andrews & Roberts, 1990; 이미리,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공인타당도

를 산출하기 위한 준거측정치로서 우울증과 자아 존중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울증과의 상관계수는 $r=.46(p<.001)$ 이며 자아존중감과는 $r=-.28(p<.001)$ 로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표 2. 요인별 문항과 요인간 상관관계

문항	I	II	III	IV	h^2
20	.81	.06	.02	.17	.69
21	.72	.15	-.03	.06	.54
22	.71	.20	.08	.12	.57
18	.71	.11	-.01	-.13	.54
19	.66	.25	-.17	.04	.52
23	.61	.19	.12	.23	.48
25	.49	-.16	.32	.15	.40
26	.48	.17	.10	-.07	.27
17	.43	-.06	.10	-.07	.24
12	.01	.63	.23	.11	.44
11	.11	.58	.06	.21	.39
14	.22	.49	.08	-.01	.29
7	.05	.48	.10	-.02	.24
15	.09	.48	.12	-.01	.25
10	.13	.48	.03	.13	.26
3	.04	.10	.70	.09	.51
4	-.03	.17	.68	.03	.49
9	.20	.32	.51	.08	.40
6	.14	.08	.41	.08	.20
8	-.07	.21	.38	.20	.24
13	.04	.02	.36	.22	.18
1	.07	.12	.16	.78	.65
2	.01	.03	.21	.73	.60
16	.08	.15	.13	.66	.48
아이젠값 변량원 요인상관	4.89 .47 I	2.49 .24 II	1.35 .13 III	1.13 .11 IV	
I	1.00				
II	.29	1.00			
III	.12	.25	1.00		
IV	.20	.26	.30	1.00	

2 일상적 사건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Coddington (1972)의 생활 사건 측정도구(Life event inventory)를 사용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와 우울증 점수와의 상관은 $.34(p<.01)$ 와 자아존중감 점수와의 상관은 $-.19(p<.01)$ 로 나타났다.

표 3. 요인별 문항과 신뢰도계수

요인별 문항과 신뢰도계수	
요인1: 부모님의 압력: $\alpha = .86$	
20.	부모님께서 학교공부를 잘해야한다고 압력을 주신다.
21.	내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공부 안하느냐고 말씀하신다.
22.	부모님께서 내 성적을 친구나 친척의 성적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
18.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께서 화를 내신다.
19.	부모님께서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23.	내가 대입고사에서 실패하면 부모님께서 실망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25.	부모님께서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외출을 허락 않으신다
26.	부모님께서 내가 내방에 있지 않으면 놀고 있다고 생각 하신다.
17.	부모님께서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 지 점검하신다.
요인2: 시험긴장과 성적부진: $\alpha = .70$	
12.	시험시간에 긴장되어 문제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11.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다.
14.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잠님이 생긴다.
7.	대학입시에서 점수 비중이 큰 주요과목의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15.	시험을 너무 자주 본다.
10.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요인3: 여가생활 부족: $\alpha = .71$	
3.	취미생활이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없다.
4.	학급 친구들과 사귄 시간이 없다.
9.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6.	이성 친구와 교체할 시간이 없다.
8.	친구와의 대화 내용은 주로 시험에 관한 것이다.
13.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
요인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alpha = .80$	
1.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면 내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2.	나의 앞으로 경력은 대학입시를 잘 치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16.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면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3. 신뢰도와 점수 분포의 분석

입시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지수로 계산하였다. 표 3과 같이 '부모님의 압력'에서

사용한 우울증이나 자아존중감 이외에 청소년 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측정치들과 입시스트레스 척도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척도가 어떠한 영역의 적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시할 수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신(199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2-25.
-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연구 I, *정신건강연구*, 1, 서울: 한양대학교 정신 건강 연구소.
- 김미애(1989). 자녀교육: 함께 생각하는 입시병, *행복이 가득한집*, 11, 364-365.
- 김종주(1990). *입시병*. 서울: 하나의학사, 1990.
- 김호권, 입시교육의 연옥, 정범모편(1991). *교육난국의 해부: 한국교육의 진단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나남.
- 박종혁(1998). 자살학우 실태보고, 푸른 나무이야기 모임편, *푸른나무*. 서울: 도서출판 푸른나무, 78-183.
- 배종근·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체: 국민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교육과학사.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리 (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 (5), 89-98.
- 이성진(1991). 학습결손과 성격장애, 정범모편, *교육난국의 해부: 한국교육의 진단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나남, 43-66.
- 이시형(1994). *현대가정의 정신병리*.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정범모·김호권·이성진·권균·이종승(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정현숙·정문자(1995). 청소년의 긴장원 분석. *발달심리학회지*, 8(1), 148-158.
- Coddington, R. D. (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al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 II: a study of a normal pop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205-213.
- Cohen, L., Burt, C., Bijorck, J.(1987). Life stress and adjustment: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93-592
-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mpas, B. E., Davis, G. E., & Forsythe, C. J. (1985). Characteristics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677-691.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s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4).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in press.
- Hops, H., Lewinsohn, P., Andrews, J., & Roberts, R. (1990).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11-220.
- Kovacs, M.,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1985, 996-998.
-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s*, 38, 235-254.
- Lee, M., *Cultural Differences in the daily manifesta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high school senior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octoral Dissertation.
- Lee, M. (1991). *Effectiveness of Coping in adolescence: The case of Korean examination stre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aster Thesis.
- Lee, M. & Larson R. (in press). Effectiveness of Coping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 McCubbin, H. Olson, D., Patterson, J., & Wilson, C.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Newcomb, M. D., Huba, G. J., & Bentler, P. M. (1981).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stressful life, events among adolescents: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00-415
- Petersen, A. C. & Hamburg, B. A. (1986). Adolescence: A development approach to problems and psychopathology. *Behavior Therapy*, 17, 480-499.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323-356.
- Sung, H., Lubin, B., & Yi, J. (199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 (Y-DACL). *Adolescence*, 27, 527-533.
- Swearingen, E. M. & Cohen, L. H. (1985). Measurement of adolescents' life events: the junior high life experiences surve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69-85.

Development of Adolescent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tress Scale

Meery Lee and Hyunsook Chung

Yonsei University, Sang 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measuri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tress. A total of 24 items included daily hassles faced by high school seniors preparing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 sample of 200 high school seniors in Pusan responded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cale,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Self-Esteem Scale. The procedure included item analysis, criterion-related validation, construct validation.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acceptable. Four factors including 'parental pressure', 'test and grade anxiety', 'lack of leisure', and 'uncertainty of the future' were extracted. The Cronbach's α were from .70 to .86.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score of the scale was norm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